

#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분리와 공동체의식의 변화 : 大阪府 八尾市の 동화지구를 사례로

조 현 미\*

## Segregation of the Lowest Social Class and Transformation of Communal Consciousness : As a Case Study of Douwa District in Yao City, Osaka

Jo, Hyun-Mi\*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오사카부 야오시를 대상으로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에서 나타나는 거주지분리현상을 살펴 보았다. 근세이후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신분계급인 부락민은 그들만의 분리된 거주지역을 형성하였고,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던 차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이 강화되었다. 한편, 야오 시에는 또 다른 피차별집단인 재일한국·조선인과 사회적 소수자인 베트남 난민·중국인이 증가하게 되었고, 부락민과 재일한국·조선인에 의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 제조업 체의 제3세계로의 이전과 불황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동화지구를 존속하게 했던 영세공장들의 수가 줄어들고, 하나 둘 없어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다. 격리된 동화지구로서의 야오시의 특성은 약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소수자끼리의 공동체의식에 기초한 투쟁과 지속적인 인권활동은 야오시의 행정방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야오시의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상의 분리의 의미는 약화되고 있으나 지역민 간의 공동체의식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공간의 변형된 형태, 혹은 소멸화 단계에 있는 거주지 분리지역의 사회적 형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부락, 동화지구, 거주지분리, 공동체의식, 오사카부 야오시

**Abstract** : This study explores of the lowest social class segregation in the residential area of Yao city of the Osaka Prefecture. The Buraku people, who constitute a social class that was the object of societal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since the beginning of modern times, formed a segregated residential area of their own. During the process of an organized struggle against discrimination that was institutionally recognized, communal consciousness among the constituents was consolidated. Moreover, in the Yao city, Korean immigrants in Japan, another discriminated group, as well as Vietnamese refugees and Chinese, who are also social minorities, increased in number. Also, activities by the Buraku people and Korean immigrants in Japan to defend human rights and the rights of social minorities began to unfold. Recently, the number of small scale factories in the Buraku's Douwa District decreased due to relocation of manufacturing companies elsewhere throughout Japan and to the effects of depression. New non-Buraku houses began to appear one by one on the site where factories started to disappear. While the spatial separatism of Yao city, as part of the isolated Douwa District, is weakening, the struggle based on communal consciousness among the social minorities and continued human rights activity is exerting great influence upon the administrative policy of Yao city. In the case of Yao city, while the visual appearance of spatial segregation is weakening, the communal consciousness among the regional residents remains. From this perspective, it can be said that this case represents a modified form of isolated space or the social pattern of segregation which is in the stage of extinction.

**Key Words** : Buraku, Douwa district, segregation, communal consciousness, Yao city, Osaka

### 1. 서론

####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장소(locale)란 단순히 특정한 지역에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장소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시공간적인 통합이 확장되는 곳이라고 볼 때 (C. Fuchs, 2007), 결국 사회 시스템은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공통으로 존재(co-present)하든 아니든 인간 주체들 간의 끊임없이 재생산된 관계의 집합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지리학과 조교수(Assistant Professor, Dept. of geograph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hmjo@knu.ac.kr)

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공간으로서의 장소는 인간 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사회적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즉, 장소는 주변과 경계 지어짐으로서 형성된 단순한 공간의 의미를 초월하여 사회적 관계와 이해로 엮어진 네트워크 속에서 유기적으로 구성된 모멘트로 생각될 수 있으며, 장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와 경험 그리고 이해의 대부분은 보다 더 큰 규모의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Massey 1994, 154-155). 그러므로 이미 자연적·인위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환언하면 특정 공간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그 공간적 특성이 특정 지워진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은 공간을 형성하고 변형함과 동시에,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장소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제약을 받는다. 이웃과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경되고, 그와 동시에 거주자의 가치관이나 태도, 행동이 주위의 환경이나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도시화의 과정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되고, 그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힘이 도시공간과 상호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사회는 공간을 창출하고, 공간은 사회를 창출하며, 사람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변화시키고 재창출한다. 또한 사람은 공간에 의해 변화되고 있다. 이것이 Edward W. Soja가 이야기한 '사회-공간적 변증법(sociospatial dialectic)'으로(P. Knox and S. Pinch, 2006; C. Fuchs, 2007), 우리 삶의 사회적, 역사적 측면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로 가득한 상호영김(intertwining)을 만들어 내면서 공간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동시에 공간적 관계에 의해 사회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함을 의미한다. Soja에 있어 사회적 관계와 공간적 관계는 변증법적으로, 상호작용적이고 상호의존적이다. 그런데 특정 공간이 그곳의 거주자의 사회적 특성이나 산업구조, 지형 경관 등에 의하여 특징지어질 때, 특히 그러한 공간과 거주자간의 사회공간변증법적인 상호관계는 더욱 심화되며, 그러한 공간은 사회적으로 분리된 지역(social-spatial segregation)으로 표상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회적인

최 하층민으로 낙인 지워져 왔던 일본의 피차별집단의 거주지역인 오사카부(大阪府) 야오시(八尾市)의 동화지구를 대상으로 내부적·외부적 요인에 의해 특정 사회계층의 거주지역이 분리되고, 그 후 해당지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배제적인 성격이 더욱 강화되어가는 형태를 사회-공간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한다. 또한 일단 형성된 격리 지역에 후차적으로 또 다른 사회적 피차별집단인 재일한국·조선인들이 합류하게 되고, 그 후 일본 사회의 새로운 소수집단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한 베트남난민과 중국귀국자들이 해당 지역으로 이입되어가는 과정과 거주지분리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서 분리된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의미를 재고하고자한다.

## 2) 거주지분리와 공동체에 대한 논의

사람들이 그들이 속한 사회에 충분히 포함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배제되는 경우, 예를 들어, 노후화한 주택단지에 거주하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 둘러싸여 구직기회가 거의 없는 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기개선을 위한 기회를 사실상 박탈당한다. 특히 인종에 의해서 경제적·사회적 박탈이 정해지는 곳에서는 박탈로 인한 빈곤 집단의 공간은 그들이 속한 사회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기든스, 2003, 293). 도시의 진화과정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무대가 되고, 그 가운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강력한 힘을 가진 다수파집단으로부터 배제당한 소수파집단은 다양한 방법으로 공간적으로 분리된다. 이렇게 분리된 지역이 형성되는 원인을 Knox와 Pinch 등은 다수파집단에 의한 주택시장에서의 차별 등과 같은 배제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소수파집단 스스로가 행한 선택의지의 측면에서 방어, 지원, 유지, 공격의 4가지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설명하고 있다(P. Knox and S. Pinch, 2006, 175-177; 山下, 1984). 그가 주장하는 첫 번째의 기능인 방어는 다수파집단에 의한 차별이 확대·격화될 때 가장 현저하게 나타난다. 분리된 거주지역의 존재는 외부적 압력에 의한 비자발적인 결과임과 동시에 소수파집단의 내적인 응집력에 의한 자발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자발적 행위인가 비자발적 행위인가의 구분은 행위자의 선택이 자유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방어적 행위로서의 거주지분리는 자발적인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함을 강요당했다고 하는 편이 가깝다. 두 번째의 상호지원 기능은 분리된 외부세계로부터의 위협이나 불안을 소수집단 내부 구성원간의 친근함과 강한 결속력으로 변화시키게 한다. 뿐만 아니라 많은 소수파집단은 자조 네트워크나 복리조직을 발달시켜 사회적·경제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민족이라는 종족자원의 동원에 의한 사회적·경제적 기반의 구축은 기업가에게는 성공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외부세계로의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설병수, 2002; 조현미, 2007). 세 번째 기능은 특유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 촉진하는 것이다. 많은 소수파집단에게는 다수파집단에게 완전히 동화하기보다는 고유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유지·발전시키고자하는 욕구가 있다. 특히 식사의 계율, 음식의 조리법, 종교규범 등에 있어서 다수파집단과 확연한 차이가 있을 경우, 그러한 문화적 전통을 유지하기 위한 집단적 차원에서의 노력이 강해진다. 하지만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자각이 희박하고 그 문화에 특징이 없다면, 구성원간의 연계는 표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며, 그 결과 집단의 결속력과 마찬가지로 분리된 거주지는 점차 붕괴되어 간다(Dench, 1975).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격의 기능은, 집단의 구성원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투쟁의 장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구성원간의 결집력은 점차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대한 방어의 단계를 넘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정치적인 힘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요구가 적절히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소수파집단의 폭동이라는 극단적인 형식으로 표출되기도 한다.

한편, 특정집단의 거주지가 분리되는 이유는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과 경제학적 접근방법 두 가지로 설명할 수도 있다(山本, 1995; 熊谷, 1987). 경제학적 접근은 토지이용과 지대와의 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에 처한 집단이 차지하고 남은 지역에 어쩔 수 없이 빈곤계층 내지는 소외계층이 거주하게 되면서 형성되는 침입과 전이, 그리고 도태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회생태학적 측면에서의 도시 분화 과정과 관계된다. 그리고 사회심리학적

접근방법은 서로 양립하기를 꺼려하는 두 집단이 있을 때 그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심리적 양상의 표출과정에 의하여 나타나는 거주지분리현상이라 할 수 있다.

1960~70년대의 도심의 쇠퇴와 도시 재개발 과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도시내부의 슬럼해체와 같은 공동체의 해체는 오래된 공동체의 분산이라는 측면으로 나타나기도 했지만(레이철 페인, 2008, 103), 도시주거 공동체에 관한 관념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모든 공동체가 구성원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전혀 만난 적도, 이야기한 적도 없지만 공동의 이익과 관심을 공유하는 소속감과 일치감을 부여하게 된다면(앤더슨, 2004), 공동체내의 공통의 정체성 유무는 주거공동체의 유지와 존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특정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외부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거나 배제 당하고 있다고 느낄 경우, 그들 공동체의 정체성은 구체적인 공간에 기초한 지역적 현상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 이들 공동체 구성원 간에는 종종 자신들에 대한 범주화·동질화가 이루어지며, '외부인'을 배제하려는 공동체의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점점 더 내부지향적으로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집단들은 타인과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며,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울타리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구성원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빗장 공동체(gated community)'의 메커니즘을 통해 그들과 대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레이철 페인, 2008, 114). 다시 말하면, 빗장공동체의 구성원들의 내부지향성은 외부인에 대한 배제와 함께, 외부인들에 의한 배제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은데, 외부인들의 배제로 인한 내부 지향성의 강화는 외부인에 대한 배제와 외부인들의 배제 모두를 강화시킴으로서 격리된 가시적 공간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외부사회로부터의 위협을 강하게 느낄수록 공동체 의식은 더욱 강화된다<sup>1)</sup>. 결론적으로 공간적 형태는 외부사회로부터의 차별과 배제, 구조적 효과와 더불어 소수집단 내부의 응집력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데, 소수파집단과 다수파집단간의 사회적 거리가 가까울수록 양 집단에 있어서의 차별과 응집력은 적어지고, 소수파

사회적 최하층계급의 거주지분리와 공동체의식의 변화: 大阪府 八尾市の 동화지구를 사례로

집단의 거주지분리는 그 집단이 소속된 사회에 동화하기까지의 일시적인 단계에 그치게 되며, 사회적 거리가 멀수록 그 반대현상이 나타나게 된다(P. Knox and S. Pinch, 2006, 178).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피차별계층의 거주지역인 동화지구는 사회적 배제라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거주지의 분리현상이 심화되고, 그에 대한 방어를 통하여 공동체의식이 강화되는 가운데 구성원 간의 상호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체제의 구축과 함께, 차별과 배제에 대한 투쟁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겪는다. 그리고 해당 지역에 또 다른 피차별집단의 거주가 시작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사회적으로 배제 받는 복수의 집단이 이미 사회적·공간적으로 분리된 지역에서 함께 거주하는 과정을 사회공간변증법적인 차원에서 나타나는 분리의 심화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분리의 완화현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동화지구에 관한 문헌자료의 검토와 함께 2008년 1월과 200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주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행정기관 및 각종시민단체의 담당자, 해당분야 전문가와의 면담을 병행하였다. 하지만 거주민의 특성상 설문조사 혹은 직접적인 면담을 통한 조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 3) 연구지역 개관

야오시는 오사카부 동남부에 위치한 전국 굴지의 공업도시로서, 2008년 현재, 인구는 약 273,292 명이고 그 중 2.6%에 해당하는 7,149명이 외국인이다. 이곳은 오랫동안 사회적 최하층계급으로 취급받았던 집단의 거주지역인 '동화지구'에 해당하며,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또 다른 피차별민족인 재일한국·조선인과 함께, 최근에는 베트남 난민과 중국으로부터의 귀국자도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곳에 이렇게 피차별민 혹은 사회적 소수자들이 모이게 된 배경에는 예로부터 거주지로서는 부적합한 지형적 조건에 '동화부락민'의 정착지가 형성됨으로서 안정적인 직업에 종사하기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계층이 주로 종사했던 직종이 발달했었다는 점, 그러한 직종들이 현재의 영세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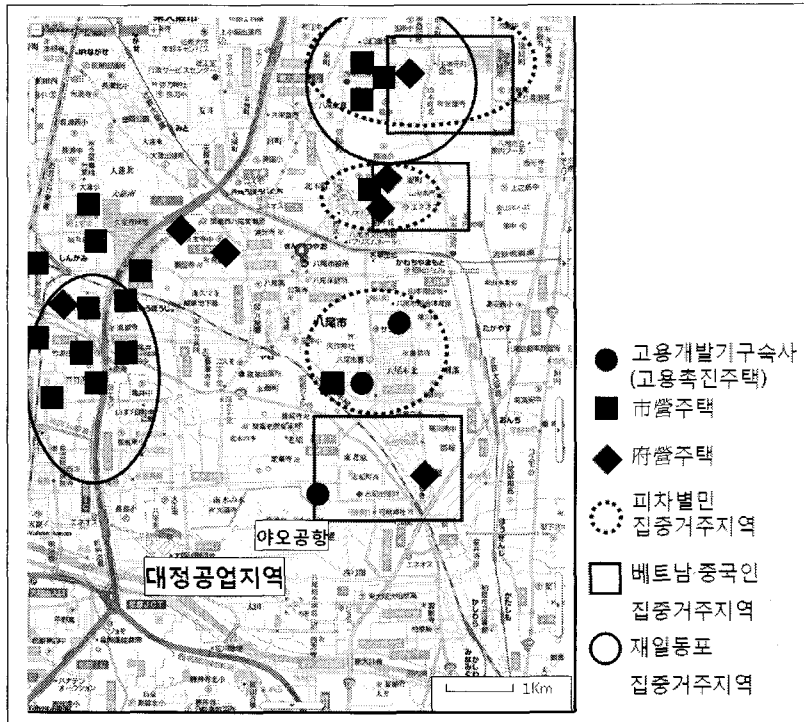


그림 1. 공영주택의 위치와 민족별 거주지 분포

업 중심의 공업집적지를 형성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야오시의 산업은 전반적으로 금속제품 등의 업종이 우세하나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어, 남부의 大正, 志紀지구는 특히 금속제품의 비중이 높고, 서부지역은 일반기계제품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특히 시의 남부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와 신소재의 개발 등 고도의 생산 시스템으로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도 많으며, 최첨단 기술을 구사한 고도의 생산력과 독자적 제품의 개발력에 의해 국내외로부터 높은 평가와 신뢰를 얻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그리고 북부와 서부는 주택가에 소규모의 공장이 산재하고 있는 공업지역이다. 이들 북부와 서부지역의 공장인근에 입지하고 있는 고용촉진주택과 시영주택, 부영(府營)주택에 피차별집단인 '동화부락'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곳에 재일한국·조선인과 베트남 난민, 중국귀국자가 다수 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서부공업지역에는 재일한국·조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그림 1).

한편 야오시의 외국인등록자의 국적별 분포를 보면 2005년 10월 1일 현재 한국·조선인이 3,740명으로 전체의 6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중국인으로 1,047명(16.9%), 베트남인이 540명(8.7%)로 이들 세 국가가 야오시 거주 외국인의 85.6%를 차지하고 있다(야오시 통계서, 2008). 중국인은 대부분이 중국귀국자와 그 가족이며, 베트남인은 난민과 그 가족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또한 야오시 거주 외국인의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의 유입은 80년대부터 시작되어 90년대 후반 이후 그 수가 급증하였다. 또한 최근 일본에서 출생한 자녀수도 늘고 있어 시내에 단독주택을 마련하는 가족도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면담조사에 의함).

## 2. 최하층계급 거주지역으로서의 부락(部落)과 동화(同和) 문제

노후화된 주택, 좁은 도로, 일조와 통풍이 극단적으로 나쁘고, 비가 오면 금방 침수해버리는 주택가 혹은 급경사지에서 사면붕괴의 불안에 떨고 있는 집들과 그 사이사이로 미로와 같은 좁은 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마을이 일반적으로 떠오

르는 동화지구의 모습이다. 일본국 헌법 제 1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인권·신조·성별·사회적 신분 혹은 가문에 의해 정치적·경제적 혹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기본적인 인권존중의 이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현대 일본에서 전근대적인 신분적 차별문제는 있을 수 없는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세계화시대의 선구를 달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일본에서 아직도 사회적 관념과 통념에 따라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는 계급과 그들의 제한된 거주지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외부세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듯하다.

### 1) 천민계급의 대두와 동화지구

루스 베네딕트는 그녀의 저서 '국화와 칼'에서 일본인은 질서와 계층제도를 신뢰하는 민족으로, 일본인은 누구나 가정 내부에서 계층제도의 관습을 배우고, 그것을 경제생활이나 정치생활 등 넓은 영역에 적용하는 철저한 계급카스트사회라고 하였다. 일본의 봉건사회는 황실과 궁정귀족 밑에 신분순으로 무사, 농민, 공인, 상인의 계급이 있었으며, 다시 그 아래에 사회 밖으로 추방당한 천민계급이 있었다. 천민계급 가운데 가장 수가 많고 잘 알려진 것은 '에타', 즉 터부시된 직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일본의 불가촉천민으로, 정확히 말하면 인간 축에도 들지 못하는 자들이었다(루스 베네딕트, 2008, 71-91).

일본에서 불가촉천민이라는 신분제도가 고착화된 것은 근세에 접어들면서 부터이다. 고대와 중세에도 이와 유사한 계급제도가 있었으나 법적인 규제를 동반한 계급제도는 근세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도쿠가와 바쿠후(德川幕府) 체제의 성립기에 지배계층의 연공미의 공급을 용이하게 하고 막부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무사를 정점으로 하고 그 아래에 농민이나 町人(직공, 상인, 어부 등) 등의 계급을 두었는데, 이 네 가지 계급에도 속하지 못하는 천민계급으로서 에타(穢多)<sup>2)</sup>와 히닌(非人)<sup>3)</sup>이 있었다. 이렇게 최하층의 천민신분을 둔 것은 농공상인 신분의 지배세력에 대한 불만을 완화시키고 민중을 상극 화시킴으로서 반체제적 행동을 위한 통합을

동화시키고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原田, 1984, 6). 그런데 에타와 히닌은 둘 다 사농공상 서열의 최하층의 위치에 놓여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타는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태어나면서부터 천한 신분으로 평생동안 그 처지를 벗어날 수 없었지만, 히닌은 주로 범죄자로 일정한 제재기간이 끝나면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또한 막부 체제하에서 에타는 청소부, 사형수를 매장하는 인부,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는 사람, 가죽 제조 등을 업으로 하면서 직종과 거주지를 제한받는 구속을 받았으나, 히닌은 걸식과 동냥을 주로 하였으며, 생업에 종사할 수 없었다는 차이가 있다(社會福祉事典, 1988, 26; 原田, 1984, 43).

이렇게 근세이후부터 제도화되어 이어져온 계급 제도는 실질적으로 다른 세 계급의 존재는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천민계급만은 그대로 일본인들의 의식 속에 잔존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데, 에타를 중심으로 하는 천민집단의 문제를 동화(同和)문제라고 하며, 이들 집단이 지정된 지역에서 거주하여야 함에 따라 역사적·사회적 이유로 생활환경 등의 안정을 향상시키는데 있어서 저해를 받고 있는 지역을 部落 혹은 同和地區라고 한다. 즉, 동화지구는 공식적으로 행해졌던 특정 계층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배제로 인해 형성된 거주지 분리지역이었던 것이다.

한편 동화지구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동화대책심의회'에서 동화문제 해결의 기본방책에 관한 내각총리대신에게 보낸 답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설명에서 시작하였다. "이른바 동화문제라는 것은, 일본사회의 역사적 발전과정에 있어서 형성된 신분계층구조에 근거한 차별에 의해 일본국민의 일부집단이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하위상태에 놓여, 현대사회에 있어서도 아직 현저한 기본적 인권을 침해당하고, 특히 근대사회의 원리로서 누구에게라도 보장되는 시민적 권리와 자유를 완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면서도 중대한 사회문제이다"(小森哲郎, 2003, 20; 芥川百科事典『ウキペディア』 등). 그러므로 동화문제란 동화대책사업의 대상이 된 지구(동화지구)에 대한 명칭으로서, 포괄적인 정의가 없는 '피차별부락'과는 달리 정식 행정용어인 것이다. 즉 행정기관이 '동화지구'라던가 '동화문제' '동화행정'

'동화대책사업' '동화교육' '동화보육'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화지구'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피차별 부락<sup>4)</sup>의 사회적 성격을 이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항인 피차별 부락의 수와 인구분포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마저도 사실상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부락민수를 약 3백만 명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부락차별의 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된 동화단체인 '부락해방동맹'의 전신인 '全國水平社'<sup>5)</sup>의 창립총회(1922년 3월 3일)가 열렸던 교토(京都)의 오카자키(岡崎)공회당 현관에 '3백만 명의 절대해방'이라고 적힌 스티커가 붙여져 있었으며, 水平社 창립이후부터 부락해방동맹의 運動歌인 「解放歌」에 "아아, 고통 받는 3백만의 형제여"라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그 이후 지금까지 '6천 부락 3백만 명의 부락민'으로 전해오고 있으므로 결국 3백만 명의 부락민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피차별민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할 수 있다<sup>6)</sup>. 어쨌든 천민집단이 사회적으로 아직도 엄연히 존속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그들에 대한 통계를 산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천민집단의 거주지역이라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그 지역이 그러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공식적인 자료는 없다.

## 2) 부락차별

부락차별은 부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인간으로서의 요구나 권리를 차별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小倉 등, 1980, 427). 즉 부락민들은 그곳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온, 최하층민이라고 낙인찍힌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부락문제 혹은 동화문제라 함은 부락민들이 자신들만의 거주지역을 형성하고, 그 거주지역이 다시 일반인들로부터 차별받고 배제되어 천민집단지역으로서의 이미지가 강화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조선시대의 백정마을, 혹은 인도의 불가촉천민 집단 거주지역과 유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1982년에 실시한 「오사카 부락 실태조사」

에 의한 오사카부 거주자(2만5천9백 세대, 8만2천 765명)의 통혼관계를 보면 '부부 모두 부락 출생'이 42.4%, '한 쪽이 일반지구 출생'이 30.3%, '부부 모두 일반지구 출생'이 21.6%로 나타났다(小森哲郎, 2003, 10). 부락민에 대한 대표적인 사회적 차별로서 혼인과 취업을 들 수 있으며, 결혼을 할 때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부락출신과의 결혼은 반대당하고, 부락민은 음으로 양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일반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조사에서는 부락민과 비부락민과의 통혼이 1/3에 이르고 있어 부락의 가계와 혈통이 폐쇄적·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리고 부부 모두 부락출신이 아니면서 부락에서 거주한다는 이유로 부락민으로 차별받는 비율도 약 1/5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에서 오늘날의 부락문제는 가계와 혈통의 문제로서보다는 지역문제로서 인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부락출신자, 혹은 부락거주자라는 점이 사회적 배제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현대 일본의 부락문제는 속지적인 성격을 가진 사회문제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락민은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생활적·경제적으로 많은 구속을 받았는데, 주거와 의복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통제와 제약을 받았다. 거주지는 이른바 '마을 밖의 마을'로서 행정적·지역적으로 격리되었으며, 그 입지조건은 열악하였고 부락 밖의 세계와는 생활상의 격차가 현저하였다. 부락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차별은 봉건적 신분제도의 잔존물로서의 부락이 근대사회에 있어서도 경제·생활·문화의 다양한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저위의 상황에 놓이게 되고, 또한 그것이 부락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저위성이 당연한 것으로서 방치된 결과이다(小森哲郎, 2003, 5).

이렇게 피차별적인 상황은 존속되었으며, 자본주의의 잔존에 따른 빈곤의 확대와 더불어 더욱 심화되어 갔다. 석탄산업·토건업·방직업 등의 기간산업에서도 가혹한 노동조건하에 근대자본주의의 저변을 지탱하는 노동력으로서 부락민들에 대한 수탈이 강화되어 농촌의 부락민은 빈농 프롤레타리아 화되었고, 도시의 부락은 급속히 빈곤화하였다. 부락민의 빈곤화와 그 확대가 일본의 근대화화 부락간의 기본적인 상관관계였던 것이다(小倉 등, 1980, 427).

### 3) 신분제도의 폐지와 동화대책사업

천민이라는 신분은 바쿠후체제가 만들어낸 것으로 그 정치적 조건이 없어지게 되면 당연히 소멸되어야 할 것이었다. 사실상 메이지정부는 사농공상의 신분제도를 폐지시켰고, 1871년에는 에타와 히닌 등에 대한 해방령이 내려지면서(「穢多非人等ノ稱被廢候條 自今身分職業共平民同様タルヘキ事」との布告), 이전의 '신분 외 신분계층'은 폐지되었다. 이로써 천민계층이라는 신분제도는 없어져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 그 이유에 대해 小森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유신의 사회개혁에 의해서도 국민의 의식변혁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권력에 반발할 수 없는 비굴한 감정이나 가문·혈통 등에 의해 상하로 나누는 차별감이나 남녀의 차별을 중시하는 낡은 인습적 관념이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부락에 대한 의식을 좀처럼 없애기 힘들었던 것이다<sup>7)</sup>.

또한 부락의 사회적 저위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해방령은 사회적인 저위로 인하여 신음하는 부락민에게 자유로운 직업과 생활향상을 위한 수단을 보장할 수 있는 경제적인 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더 나아가 근대사회로 들어오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특정 직업에 대한 권리마저 빼앗겨 실업의 최선봉에 내몰리게 되어 오히려 전시대보다 더 악화된 경제조건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즉 농촌의 부락민의 대부분은 농지를 가지지 못하였고, 도시의 부락민의 대부분은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지 못했다. 자본주의의 발전 속에서 부락민 중 일부는 광산, 토목건설, 섬유산업 등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과 과중노동에 허덕이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영세소작농, 토공, 일용직, 행상, 피혁업, 신발제조 등의 잡역노동으로 겨우 연명하였다. 또한 부락의 과잉 노동력은 높은 소작료와 저임금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즉 산업예비군의 저변을 구성하는데 이용되었다.

결국, 부락은 열악한 생활조건 그대로 자본주의의 자유경쟁 속으로 내몰려 사회적저위성은 개선되지 않았고, 일반사회와의 경제적 격차도 줄어들지 않았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다시 세상의 차별의식, 배척관념을 온존시키고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다이쇼(大正), 쇼와(昭和)시

때에 이르러서도 변하지 않았던 것이다(小森哲郎, 2003, 8).

결국 해방령에 의해 법적으로는 신분과 직업상의 제한이 폐지되었지만,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차별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이는 해방령이 인권이나 정의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봉건제도의 폐지, 그리고 공업화의 촉진과 토지의 개인적 소유권제도, 공평한 납세제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그때까지 유지되어왔던 신분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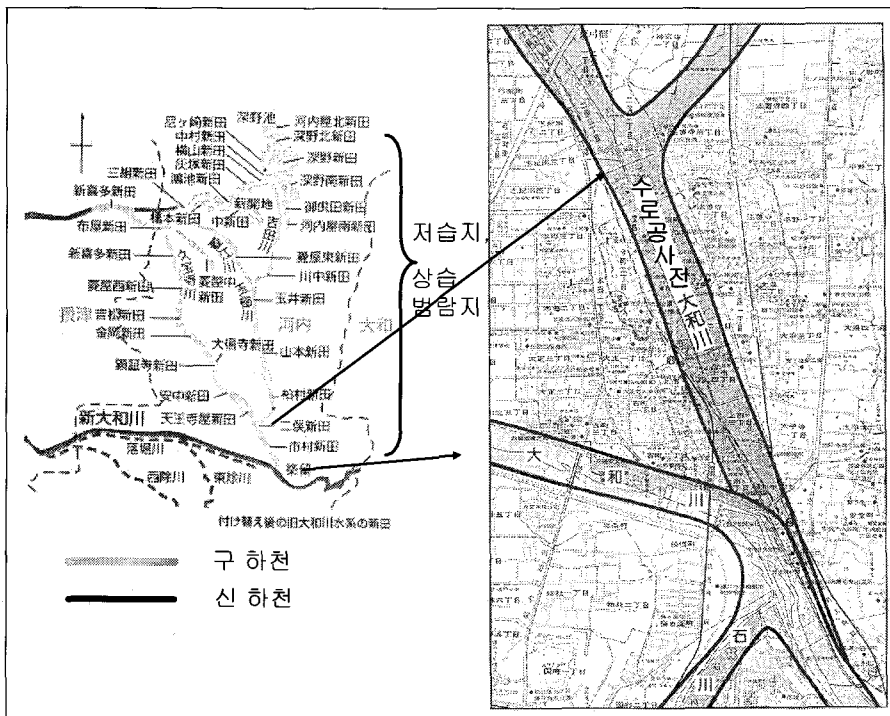
부락민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차별은 부락민의 경제적 저위성을 필연적으로 동반하였으며, 부락민의 거주지역은 거주조건, 열악성과 함께 불량거주지를 형성하게 되고, 생활상의 빈곤함과 거주조건, 열악성은 자녀들의 기초학력의 부족으로 이어져 빈곤의 대물림이 계속된다. 이에 국가와 지방공공단체가 협력하여 불량지구가 밀집하여 위생과 풍기, 보안상 유해하거나 위험한 지구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주택, 도로, 상하수도, 각종 위생시설, 동화교육사업, 사회복지서비스로서 隣保館,

보육소, 생활향상시설, 사회교육, 부락산업시설 등 광범위하면서 종합적인 동화대책사업 특별조치법을 1969년 7월에 제정·시행하게 된다. 이 사업은 2002년에 종료하였는데, 해당 사업이 실시된 지역은 舊동화지구라는 명칭으로도 불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동화대책사업의 대상에도 들지 못했던 피차별부락은 '미지정지구' 혹은 '미해방부락'이라고 불린다.

### 3. 다민족 거주지역으로서의 야오시

#### 1) 야오시 동화지구의 형성과정과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화지구의 생활환경은 극히 열악하다. 야오시에 위치한 동화지구의 경우도 생활환경 면에 있어서 일반적인 동화지구의 이미지와 그다지 큰 차가 없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산지에서 흘러나온 수많은 지류가 합쳐져서 야오시의 남부를 흐르고 있는 야마토강(大和川)으로 흘러 들어가는데, 야오시와 인근 지역은 홍수에 의



출처; 大和川付替之300周年記念事業実行委員會, 2004

그림 2. 수로공사 전·후의 야마토강 유역



한 범람이 잦은 저습한 평야지역이었다. 근세에 들어와 야마토강의 수로변경공사에 의해 구하천의 하상지대는 경지개발이 진행되고, 개발된 경지에서는 목면생산이 활발해졌다. 그리고 야마토강의 새 유로는 생산된 목면의 집하와 운송을 담당하는 교통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후 메이지(明治)시기에 접어들면서 철도의 개통에 따른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오사카의 근교도시로서 발전해 가는 한편, 외래면의 수입으로 인해 목면생산지로서 사용되었던 농지는 공업용지로 전용되고 근대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한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시당국에 의한 공장의 유치가 적극적으로 추진된 결과 제조업 중심의 전국 굴지의 공업도시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大和川付け替300周年記念事業실행위원회, 2004, 8-19; 高智富美, 2005, 46).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야오시는 중세부터 오사카만과 야마토강 상류에서 물자를 수송하던 장소로서, 또한 육로교통의 결절지로서 일찍부터 발달해 왔다. 하지만 근세에 접어들면서 바쿠후체제의 차별정책의 일환으로 야오시 일대는 피차별 부락이 되고, 부정한사람들이 담당하는 작업으로 치부되었던 죽은 소와 말을 다루는 직업 종사자들의 거주지로 고착화된다. 그 결과, 죽은 소와 말을 처리한 부산물로 얻게 된 피하지방을 이용한 아교생산이 주요산업이 되었다. 大正期에는 당시 쇠퇴했던 목면생산지에서의 과잉노동력의 전환으로서 성냥공장, 제유공장, 豚毛를 이용한 製毛所, 염색공장 등이 설립되어 이러한 업종이 1955년경까지 동 지역에 있어서의 주류산업으로서 발전해왔지만, 전후에는 이들 산업이 쇠퇴하면서 타 지역과의 경제적·문화적 격차가 커져갔다(八尾市教育委員會同和

教育室, 1992; 高智富美, 2005).

동화지구 주민들은 직업이 제한되었을 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차별도 심하여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일반 주민들과는 분리되어 있었고, '마을 밖의 마을'에 위치한 동화지구의 주택은 노후하고 열악했다. 그러한 가운데 1965년에는 '부락해방동맹 야오지부'가 결성되었고, 주택·생활자금 등을 요구하는 행정투쟁이 개시되었다. 이후 주택, 해방회관, 보육소 등이 건설되고, 도로, 공원, 학교 등이 정비되기 시작했다. 더 나아가 국가의 동화대책심의회답신이 제출되면서 야오시에서도 1970년에 '야오시 동화대책 심의회답신'이 제출되고, 지역내에 다양한 협의회가 설립되어 환경개선사업이 실시되게 되었다(八尾市教育委員會同和教育室, 1992; 八尾市同和對策協議會, 2001). 이 시기에 전국의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많은 부락민들을 위하여 시영주택이 건설되었는데, 1970년대 접어들어 야오시의 동화지구에도 주민들을 위한 시영주택이 <그림 1>에서와 같이 주로 북부와 서부지역에 건립되기 시작했다.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시영주택도 노후화되어 재개발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한편, 동화민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은 결혼이나 취업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부각되었는데, 그와 함께 인간적인 차별로서 나타났던 대면접촉의 기피현상 중 하나가 동화지역 주민과 같은 대중목욕탕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열악한 주거환경 가운데에서도 그들만을 위한 별도의 대중목욕탕은 부락의 필수요소가 되었으며, 직업의 특성상 간·폐질환, 골절 및 근육계통의 질병 등을 앓고 있는 사람이 많았으므로 진료소 또한 부락에 있어서 필수적인 시설이었다.



지금도 남아있는 '부락차별철폐'입간판

동화부락내의 목욕탕

동화부락내의 청년회관

그림 3. 동화부락의 내부와 부락의 3대요소 (2009년 1월 촬영)

이렇게 직업과 거주 뿐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친 사회적인 배제와 차별에 항거하기 위한 운동이 부락민들 가운데서 전개되기 시작하였는데, 그 운동의 중심인물은 부락의 청년들이었다. 그러므로 대중목욕탕과 진료소, 그리고 차별에 대항하기위한 청년회조직을 부락의 3대 구성요소로서 들고 있다(면담조사에 의한).

## 2) 재일한국·조선인의 정착과 지역 내 활동

사회적으로 격리되었던 부락에서는 오히려 타 지역에 비해 외부인에 대한 주택차별이 심하지 않았고, 부락민이 할 수 있었던 제한된 업종이기는 하지만 숙련된 기술이 없더라도 취업의 기회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방이전부터 일본사회의 또 다른 피차별 민족인 재일한국·조선인의 해당 지역으로의 유입이 많았다. 해방이후에는 그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던 재일한국·조선인과의 연계로 그 수가 더욱 증가하여 '1000세대 중 대략 100세대는 조선인'이라고 불릴 정도였다(高智富美, 2005). 하지만 최근에는 그 수가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일본인과의 혼인, 귀화 등의 이유로 인한 재일한국·조선인의 감소와 무관하지 않다.

동화부락에서의 재일한국·조선인의 생활상은 1982년 10월 부락해방동맹과 야오시의 한국·조선인 조직인 '야스나카 동포친목회'가 협력하여 실시한 실태조사(安中同胞親睦會, 1984)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조사는 세대구성과 주택·생계·건강·취업·사회보장·교육·피차별 경험 등의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실시되었는데, 조사자수는 101세대, 386명으로서 당시 야스나카에 거주하는 재일한국·조선인의 대부분이 조사에 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사내용 중 취업형태를 보면 해당지역의 재일한국·조선인은 오사카부와 비교하여 고용자의 비율이 낮고 자영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고용자의 상태를 보면, 상용직의 비율(31.6%)이 매우 낮아서 오사카부의 약 반밖에 되지 않았으며 '일용직'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의 불안정한 직업이 34.8%로서 오사카부의 5배 가까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임금형태에도 반영되어 '월급'을 받

는 자가 1/3도 되지 않고 '일급월급'(34.0%), '시간급'(17.9%), '일급'(17.5%)이 합하여 70.9%로, 조사자의 2/3이상이 불안정한 임금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더욱이 직장의 종업원 수를 보면, 30명 미만의 직장에서 취업하고 있는 자가 73.8%(오사카부는 51.2%)로 2/3이상이 영세기업에 취업하고 있으며,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 취업자는 한명밖에 없었다. 이와 같이 재일한국·조선인은 중견·대기업으로부터 현저하게 배제되었으며, 일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도 심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약화되었다고는 하나 현재까지도 사회적 차별과 배제는 이어지고 있어 그들의 직업구조에 반영되고 있다(조현미, 2007).

재일한국·조선인의 취업에 있어서의 불리한 상황은 그들의 주택여건에서도 드러난다. 부락해방운동이 전개되었던 1965년의 45일간에 걸친 시청 앞에서의 농성투쟁을 비롯하여 부락민들의 주택투쟁에 대한 재일한국·조선인의 적극적인 참가와 연대의 성과로 당시의 공영의 철근주택 거주자는 약 37%에 달하게 된다. 하지만 1982년 조사당시에도 여전히 1/3 가까이 가 하급의 목조주택(민간임대)에 거주하였으며, 약 90% 정도가 주택여건에 있어서 공간의 협소, 위생조건, 욕실·화장실·부엌 등의 설비의 불충분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오사카부의 경우 45%). 또한 국가가 정한 1985년까지 확보해야 할 최저거주수준에 달하지 못하는 가구가 5인 세대 가정, 6인 세대 가정의 반 수 이상이었으며, 2인 세대, 3인 세대 가정도 1/3에 달하였는데, 이는 오사카부의 3배 정도였다.

현재 야오시에 있어서의 재일한국·조선인만의 거주환경을 통계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03년도의 야오시의 통계(야오시 통계서, 2008)에서 나타나는 야오시 전체의 연간 수입과 주택소유관계를 보면 전반적으로 거주 및 주택여건은 어느 정도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민영주택의 임대료가 27.7%, 공영주택의 임대료가 전체의 5.4%, 공단·공사 임대료가 1.1%로 이 세 가지 유형이 전체의 34.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유형에 속하는 가구의 반 수 이상의 세대별 연수입이 200만 엔 미만으로, 한 달 가계수입이 평균 16만 엔에 못 미치는 빈곤계층이었다. 앞서 본바와 같이 동화부락민, 재일한국·조선인, 그리고 베트남과 중국인은 이들 공영주택(시영주택, 고용촉진주택,

표 1. 아오시 거주민의 연간 수입과 주택소유관계

세대의 수입	총수(戶)	주 세 대						동거세대. 주택이외의 건물거주
		자가	임 대 주 택					
			총수	공영임대	공단· 공사임대	민간임대	급여주택	
총수	100,110	61,080	36,140	5,420	1,080	27,770	1,870	410
200만엔 미만	20,380	8,200	12,110	2,460	410	9,210	20	70
200~300	14,770	8,020	6,700	1,160	360	5,070	110	50
300~400	14,520	9,040	5,410	660	110	4,420	220	70
400~500	11,400	7,480	3,840	490	-	3,230	110	70
500~700	16,030	11,440	4,520	410	-	3,600	510	70
700~1000	11,340	9,140	2,140	130	50	1,280	680	60
1000~1500	5,990	5,340	650	30	90	360	170	-
1500만엔 이상	2,020	1,940	70	-	-	60	20	-

\* 총수에는 주택의 소유관계 '불명', 세대의 연간수입계급 '불명' 포함  
 자료: 總務省統計局 「住宅統計調査報告」, 2008

부영주택)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담조사에 의함).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가주택 소유자의 비율이 전체의 60.1%로, 이들 세대의 수입도 년 500~700만엔의 비교적 고소득자의 비율이 전체의 71.4%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자가주택을 영업장으로 겸용하는 영세규모의 자영업 종사자의 주거특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즉 아오시가 영세공업 집적지에 위치한 주공혼재지역이라는 특색과 오사카 중심부로의 통근권내에 있다는 점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새로운 주택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마을내에 산재하고 있는 영세공장이 세계화의 추세로 중국등지로 진출하는 타 중소기업과 비교하여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어 도산하게 된 부지에 연이어 신흥주택이 들어서게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본다(면담조사에 의함). 이러한 신흥주택의 증가는 이제까지의 동화부락의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통근권 내의 저렴한 주택가를 선호하는 비부락민의 증가경향을 나타냄으로서 지역성에 얽매인 사회구조적인 차별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 3) 베트남민과 중국귀국자의 증가

1961年(昭和 36年)에 설립된 고용촉진사업단은

이전에 노동복지사업단(현재의 독립행정법인 노동자건강복지기구)이 설치·운영해왔던 직업훈련시설(실업보험법에 기초한 복지시설)을 인수인계함과 동시에 1959年(昭和 34年)에 설립된 탄광 이직자에 대한 지원이 목적인 '탄광 이직자 원호회'의 사업을 이어받았다. 그런데 고용촉진사업단법 제19조 제4호에는 '광역 직업소개 활동에 관계되는 公共職業安定所의 소개로 취업하는 이직 자를 위한 숙사를 설치 및 운영할 것'이라는 규정이 있었으므로 고용촉진사업단은 이직자용 숙사(고용촉진주택)건설에 착수하게 된다. 설치당시에는 탄광합리화 사업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직 자가 발생하였으므로 고용촉진 주택은 탄광의 폐쇄로 이전해야 했던 광부들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였던 거주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 후 탄광뿐 아니라 조선업계를 비롯한 구조불황업종으로부터의 이직 자를 위한 역할도 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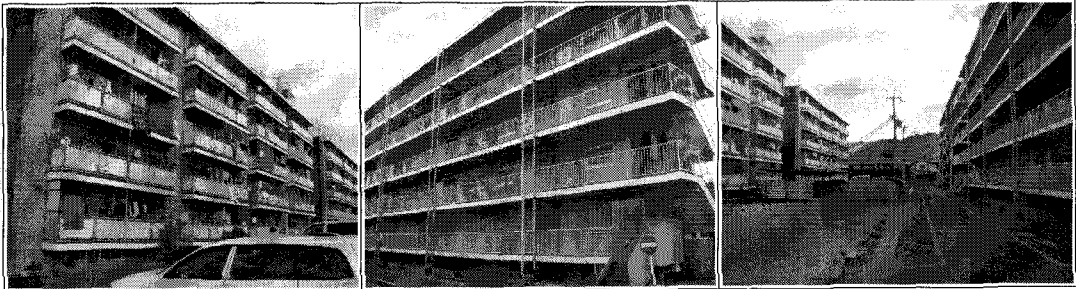
고용촉진주택이 건설되기 시작하고 40여년이 흐른 2001년 12월 19일, 각의결정에 의해 「특수법인 등 정리합리화계획」이 실시되었고, 이에 따라 노후화된 주택의 철거와 주민의 퇴거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고용촉진주택은 「현재 입주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조기폐지를 위한 방책'을 검토하고 가능한 조기에(고용촉진주택을) 폐지하도록 한다」는 결정<sup>8)</sup>에 따라 주민의 퇴거가 진행 중에 있다.

2006년 8월 말 현재 고용촉진주택은 전국에 1,532 住宅, 3,838棟, 141,722戶가 있다.

한편 일본이 베트남을 비롯한 인도차이나반도의 난민을 받아들여지게 된 국제적인 정세를 보면, 1975년에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발생한 대규모의 인도차이나 난민문제가 국제사회의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고, 당시 난민수용에 대한 거부 입장을 보였던 일본에 대한 비난과 함께 선진7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이 난민수용을 허가하도록 강한 압력을 가한다. 이로 인하여 1978년 일본정부는 난민에게 정주를 허가하게 되고, 이듬해인 1979년, 최초로 500명의 난민이 들어온 뒤 그 수는 점차 확대되어 1978년부터 2006년 말까지 인도차이나 난민정주 수용자수는 11,319명에 달하게 되었다(조현미, 2009, 452). 하지만 최근에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도차이나반도 출신은 난민의 자격으로서 입국하는 자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합법출국계획」에 따른 가족재회를 위한 입국자이다. 이들 난민과 그 가족들의 일본국내에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하여 효고현 히메지시(兵庫縣 姫路市), 가나가와현 야마토(神奈川縣 大和市), 도쿄도 시나가와구(東京都 品川區)의 3개 지역에 정주촉진센터가 설치되어 일본어교육,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의 정주촉진업무가 실시되고 있다.<sup>9)</sup>

이들은 일정기간의 정착지원기간이 끝난 후 소개받은 직장에 취업하게 되는데, 이때 제공된 주택이 앞서 언급한 고용촉진주택이었다. 야오시는 원래부터 영세공장이 집적한 곳으로서 히메지 고용촉진센터와도 그다지 멀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베트남 난민들이 야오시의 고용촉진 주택에 입주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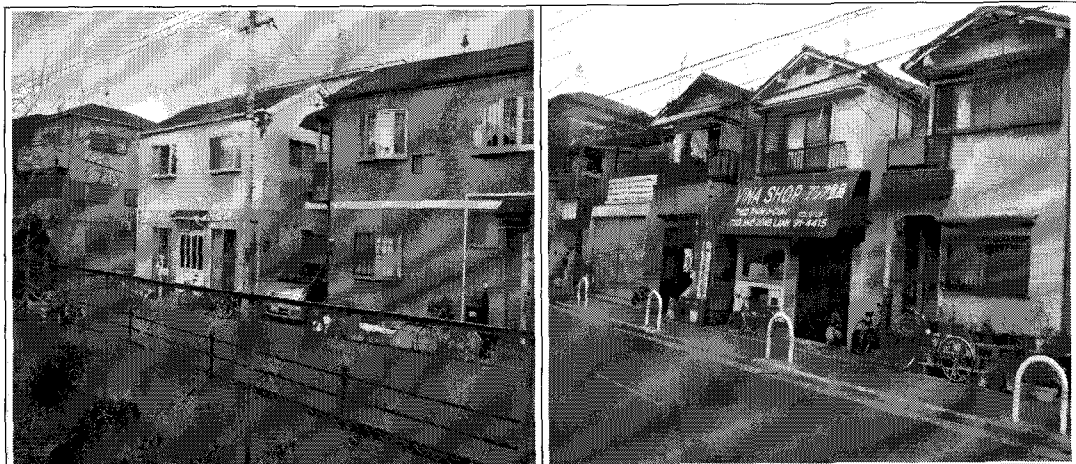


주민이 아직 남아 있는 주택단지(1)

주민 모두가 퇴거되고 폐쇄된 주택단지(2)

한 단지 내에 마주하고 있는 (1)과 (2)

그림 4. 고용촉진주택의 현황(2009년 1월 촬영)



베트남이름의 문패가 나란히 있는 두 주택

주택가의 베트남인 가게

그림 5. 야오시의 베트남 주택(2009년 1월 촬영)

게 되었다. 이와 유사한 이유로 중국으로부터의 귀국자들 역시 동 주택에 입주하게 됨으로서 야오시의 고용촉진주택단지는 현재 베트남과 중국인들의 집단거주지역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난민이나 귀국자녀의 신분보다는 그 가족들의 입국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베트남인과 중국인들은 야오시 남부에 위치한 대규모 공업단지와 서부와 북부에 산재하고 있는 영세공장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들은 더러는 1시간 이상의 소요시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로 통근을 하고 있다(면담조사에 의함).

그런데 고용촉진주택의 노후화로 인한 폐지방침에 따라 거주기간 만료자부터 차례로 퇴거하기 시작하고 있어 그 일대는 노후한 주택지의 황량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퇴거조치로 인하여, 혹은 그 이전에 주택을 나온 난민과 중국귀국자 중에는 고용촉진주택단지 인근에 단독주택을 세운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 여전히 고용촉진주택 인근은 베트남과 중국인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남아있으며, 이들이 경영하는 레스토랑, 노래방 등의 에스닉 상점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5에서는 고용촉진주택 인근에 새로이 건립된 주택에 베트남인이 거주하고 있는 사례와, 기존의 주택가에 베트남인이 모국인을 상대로 경영하는 식품점이 있다. 그런데 인근에는 이러한 베트남인의 주택과 상점들이 도처에 있지만, 지역을 안내해준 봉사자들이 개인정보의 보호차원에서 문패를 부가시키는 것을 금지하였으므로 문패가 드러나지 않도록 멀리서 사진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 4. 다민족 공동체로서의 사회적 역할변화

야오시는 일본에서 차별과 인권에 관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몇 안 되는 도시로서, 두 군데의 동화지구가 있으며 중국에서의 귀국자, 베트남 난민, 그리고 재일한국·조선인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다민족 거주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거주민인 부락민과 재일한국·조선인들은 비록 그 원인은 달랐지만, 취업을 비롯한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받았고, 그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과정에서 힘을 합하게 된다. 1960년대에 접

어들어 부락해방운동과 병행하여 동화교육에 대해서도 힘을 기울이게 됨에 따라 지역 내의 어린이들의 학습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부락의 역사를 학습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다. 그런데 야오시에서의 부락해방운동에는 다수의 재일한국·조선인들이 함께하였고, 어린이들의 학습을 위한 활동에도 재일한국·조선인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가했다(高智, 2005, 47). 그러한 가운데 부락민에 대한 차별뿐 아니라 자신들에게만 해당되는 더욱 엄격한 민족적 차별이 존재함에 대한 자각과 함께 민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윽고 1974년에 재일한국·조선인들의 관점에서 저학력의 극복과 일본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하여 어린이들의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돗가비 어린이회(トッカビ子供會)<sup>10)</sup>가 설립된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安中同胞親睦會가 설립되어 보다 조직적으로 부락민들과 합세하여 동화대체사업에 있어서의 국적조항 철폐 등의 운동을 전개해나갔다.

본고에서는 ‘돗가비 어린이회’를 중심으로 재일한국·조선인들의 지역내에서의 활동과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동 회는 재일한국·조선인들이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소수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하고, 또한 민족적 뿌리를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시작한 조직이었으나 그 후 증가하기 시작하는 중국과 베트남 등에서의 새로운 이민자들을 위한 활동도 동시에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1986년부터 시작된 중국귀국자녀와 베트남 이동 대상의 일본어 지도에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돗가비어린이회’의 활동은 일본어교육뿐만 아니라 통·번역 등의 상담, 중국과 베트남의 모국어교실, 자기계발사업, 각종 교류 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범위와 내용을 확산, 심화하기에 이르렀다(トッカビ子供會のあゆみ, 2008.2).

한편, 지자체 차원에서도 동화문제의 해결을 시정의 중요과제로 두고 있는 야오시는 1963년에 ‘동화교육의 기본방침’을 책정한 이래, 1967년 6월에 ‘야오시 동화교육 기본방침’을 전면 개정하는 등의 적극적인 동화교육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1966년에는 오사카부내에서 가장 빨리 ‘야오시 동화교육 추진 협의회’(현재의 야오시 인권계발 추진 협의회)를 발족시켰고, 1979년에는 ‘야오시 기업내 동화문제 연수추진협의회’(현재의 야오시 기업인권 협의

회)를 발족하는 등 시민과 기업에 대한 개발활동의 촉진을 꾀하고 있으며(八尾市人權文化部人權國際課, 2006.3, 5), 2001년에는 인권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모든 사람이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야오시 인권존중 사회만들기 조례’가 제정되기에 이른다(八尾市人權文化部人權國際課, 2005, 3).

또한 ‘돗가비 어린이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민족교육운동을 계기로 야오시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이미 외국인 거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79년에 일반행정직 직원의 채용시험요강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하였고, ‘재일 외국인 교육의 추진’을 교육중점목표로 두었다. 1981년에는 아동수당법에서 국적조항을 철폐하였고,<sup>11)</sup> ‘야오시에 민족교육을 보장하는 연락회’가 결성된다. 1990년에는 ‘재일 외국인 교육연구회’가 발족되었고 이듬해인 1991년에는 야오시의 종합계획 가운데 국제화 및 국제교류와 함께 재일외국인의 인권옹호가 과제로 대두되어 야오시 국제교류센터를 통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원 및 개발활동을 실시함과 동시에 시청사내의 각 부서에 외국어표지를 달도록 하였다. 한편, 각종 행정서비스에 대한 번역과 함께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자녀들의 민족클럽을 설치하도록 하였다. 이듬해 1996년에는 ‘야오시 재일 외국인 고령자 복지회’가 창설되고 ‘야오시 재일 외국인 시책 검토 시민위원회’가 설치되기에 이른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졌던 중에서 특히 주목할 내용으로서 1998년에 ‘야오시 재일 외국인 시책 검토 시민위원회의’의 보고서를 기초로 작성된 시민용 홍보책자인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향하여(共に生きる社會をめざして)<sup>12)</sup>와 2006년에 ‘돗가비 어린이회’의 협력으로 야오시인권협회가 제작하여 일반시민에게 배포한 ‘외국인시민과의 공생을 향하여(外國人市民との共生をめざして)’는 관과 민이 협력하여 사회에 만연한 소수민족에 대한 차별의식을 없애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렇게 동화지구의 부락민에 대한 인권운동인 부락해방운동에서부터 시작하여 재일한국·조선인의 민족교육으로 이어진 활동은 새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귀국자와 베트남난민들을 위한 활동으로 그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일반인들로부터 차별

받고 배제된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집단들이 특정 지역 내에서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인권에 관한 시책을 전개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10월에 야오시가 시민 13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민의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4%가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가 충실해졌다고 답한 반면, 61%가 시민의 의식은 그다지 변하지 않았거나 더 심해졌다고 응답하고 있어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지속적인고 체계적인 사회적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sup>13)</sup>.

## 5. 마무리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사회적인 최하층민으로 낙인 지워져 왔던 일본의 피차별집단의 거주지역인 오사카부 야오시의 동화지구를 대상으로 특정 사회계층에서 나타나는 거주지의 분리현상을 사회-공간 변증법적인 측면에서 살펴 보았다.

근세이후 정치적인 의도하에 만들어졌던 신분계급의 고착화로 인한 부락과 부락민의 존재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의 대상이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경제활동까지도 제약함으로써 빈곤을 심화시켰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함께 사회적 차별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한편, 사회·경제적 배제에 의해 분리된 지역으로서의 부락은 직업의 제한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는 하나 그들만이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이 있었고, 그 직업 때문에 다시 사회적으로 더욱 멀시받게 되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직업세계를 넓혀나갔다. 또한 제도적으로 인정되었던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부락 내 구성원간의 공동체 의식의 강화와 상호협조가 이루어졌다. 결국,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분리되었던 거주지역은 내부적인 기능에 의하여 그 성격이 더욱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야오시와 같이 내부의 응집력이 강한 사회라 하더라도 사회적인 차별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집단에 대해서는 비교적 관용적이며 주택시장의 폐쇄성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게다가 저렴한

불량주택과 비숙련직종의 존재는 경제적·사회적 피차별집단인 재일한국·조선인의 해당지역으로의 유입을 유도함과 동시에 동일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하였다. 부락민과 재일한국·조선인이 연대하여 이전보다 더욱 부락차별 및 국적차별 철폐운동과 동화교육 사업 전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그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급속한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일본에도 8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비롯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런데 이들과는 다른 배경으로 일본이 인도차이나 반도로부터의 난민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난민과 중국귀국자를 위한 숙소로서 제공되었던 것이 주로 동화지구에 건설되었던 '고용촉진주택'이었다. 고용촉진주택에 입주한 난민 및 중국인 귀국자들과의 연계로 야오시에 베트남인과 중국인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들은 부락민이나 재일한국·조선인의 입장과는 또 다른 사회적 소수자였다. 제도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신분적인 차이와 민족적인 차이에 기인한 사회적인 배제를 겪고 있던 부락민과 재일한국·조선인에 의하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과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것은 타자를 위한 활동의 전개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의 연장선이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동화지구를 존속하게 했던 영세공장들이 세계화의 추세에 따른 제조업체의 제3세계로의 이전과 불황의 여파 등으로 인하여 점차 그 수가 줄어들게 되고, 하나 둘 없어진 공장부지에 새로운 주택들이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동화지구에도 새로운 거주자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전국 굴지의 공업지역이기도한 야오시가 오사카시의 중심부와 인접성과 교통의 편리함으로 인하여 부락에 대한 이미지보다 공업도시와 베드타운으로서의 이미지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바와 같이 부락과 동화지구의 존재는 공공연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확한 위치는 이제 공식적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야오시로의 전입자들은 그 곳이 동화지구라는 사실을 몰랐거나, 알아도 더 이상 동화지구라는 사실에 연연하지 않는 다고도 볼 수 있다(면담조사에 의함).

동화지구로서의 야오시가 존재하기 위하여 사회적 차별과 배제라는 요인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

였고, 부락민들의 사회·경제적인 입장이 그러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시켰지만, 지역성에 얽매인 사회구조적인 차별은 악화되고 있으며, 분리된 지역으로서의 특성도 약해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끼리의 공동체 의식에 기초한 투쟁과 지속적인 활동은 야오시의 행정방침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그러므로 야오시의 경우,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상의 분리의 의미는 약화되었다고 하나, 지역민 간의 공동체 의식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격리공간의 변형된 형태, 혹은 소멸화 단계에 있는 거주지 분리지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형태의 한 예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주

- 1) 유대인 게토지구, 북미의 흑인 게토지구, 일본의 이쿠노구(生野區)와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토대(戶手), 코펜하겐의 크리스티안스하운(Christianshavn)은 그러한 가시적 공간이 결과적으로 공동체의 삶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 사례 중 일부이다.
- 2) 중세와 근세시기의 천민신분 중 하나이다. 牛馬의 死體處理 등에 종사하였으며, 죄인의 체포와 처형에도 사역되었다. 에도(江戶)시대의 막부체제하에서는 히닌(非人)과 함께 사농공상보다 하위의 신분으로 고정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거주지나 직업이 제한되어 피혁업에 관여하는 사람이 많았다. 1871년(明治4년) 太政官布告에 의해 평민으로 籍이 편입된 이후에도 사회적 차별은 존속하였고, 현재까지도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廣辭苑).
- 3) 에도(江戶)시대의 막부체제하에서 에타와 함께 사농공상 4신분의 밑에 놓인 최하층의 신분. 비숙한 遊藝, 죄인의 送致, 刑屍의 매장 등에 종사했다(廣辭苑).
- 4) 피차별 부락은 '특수부락' '후진부락' '細民부락' '피압박부락' 등으로 불리었으며, '미해방부락'이라는 말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小森哲郎, p. 22).
- 5) 全國水平社の 창립총회에서 채택된 「水平社宣言」은 일본 역사상 처음으로 피차별자 자신이 자주적인 운동으로 해방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 문서로서 그 의미를 평가받고 있다. 「水平社宣言」의 내용과 부락해방운동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다음 웹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asahi-net.or.jp/~mg5s-hsgw/siryou/kiso/suiheisya\\_sengen.html](http://www.asahi-net.or.jp/~mg5s-hsgw/siryou/kiso/suiheisya_sengen.html) (2009.10.10일 검색)
- 6) 최근 간행된 각종 자료에도 여전히 그 기록은 유효하여 1988년에 간행된 『사회복지학사전』, 2003년에 발간된 小森 등의 『동화문제에 대한 기초지식자료』 에도 여전히 현재 남아있는 동화지구는 일본 전국에 6천 여개소, 인구는 3백만 명이라고 기록되어있다.
- 7) 많은 마을에서는 에타나 히닌과 같이 취급받는 것에

- 대해 강한 반대가 있었으며, 해방령 발표 직후부터 2년 이상에 걸쳐 해방령반대일규(解放令反對一揆)가 끊이지 않았다. 해방령에 반대하여 부락민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기도하고, 부락민을 「新平民」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거부하였으며, 예전처럼 예타라고 불렀다. 이에 행정당국에서는 해방령직후에 「旧穢多」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는 「新民」, 「新平民」, 「新古平民」이라는 명칭도 나타났지만, 한편으로는 부락민이 「新平民」이라고 자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위키백과사전: <http://ja.wikipedia.org/wiki/%E9%83%A8%E8%90%BD%E5%95%8F%E9%A1%8C%E7.8F.BE.E5.9C.A8.E3.81.AE.E9.83.A8.E8.90.BD.E5.B7.AE.E5.88.A5>).
- 8) <http://ja.wikipedia.org/wiki> 2009.1.27 검색
- 9) 외무성 홈페이지 <http://www.mofa.go.jp/mofaj/gaiko/nanmin/main3.html> 2009.1.27 검색
- 10) 돗가비어린이회의 소식지인 「トッカビ」 특별호에 따르면 「돗가비」의 의미는 한국 전래동화에 등장하는 ‘도깨비’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또한 ‘도깨비는 매우 강하고 무서운 존재이지만 약간의 명칭하고 사람들과 친숙한 면이 있다. 우리는 차별에 굴복하지 말고 차별에 대항하는 용기와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명량함을 가지기 위하여 이 이름 붙이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 11) 가와사키시에서는 1975년에 아동수당법에 있어서의 국적조항을 철폐하였다. 이 역시 가와사키 거주 재일한국·조선인의 역할이 컸다.
- 12) 이 홍보책자는 2008년 현재도 계속하여 출간, 배부되고 있다.
- 13) 응답자의 47.8%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동화문제가 가장 많이 약 70%를 점하고 있다.
- 2001, *Introducing social Geographies*, Edward Arnold Ltd.)
- 설병수, 2002, 호주내 한인들의 소규모사업과 종족자원의 두 얼굴, *한국문화인류학*, 35(2), 275-301.
- 조현미, 2000, 재일동포의 집주지역형성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요세바 고도부키를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35(1), 141-157.
- 조현미, 2007, 재일한인 중소기업자의 직업과 민족간의 유대관계: 오사카 이쿠노구를 사례로, *대한지리학회지*, 42(4), 601-615.
- 조현미, 2009, 일본의 다문화공생정책을 사례로 본 사회통합정책의 과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5(4), 449-463.
- Christian Fuchs, 2007, *Transnational space and the 'network society'* 21st Century Society, 2(1), 49-78.
- Dench, G, 1975, *Maltese in London : A Case Study in the Erosion of Ethnic Consciousness*, Routledge, London.
- Paul Knox & Steven Pinch, 2006, *Urban Social Geography: an Introduction*, Fifth Edition, Person Education Limited. London.
- Massey, D. 1994, *Space, place and gen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小倉表二・小松源助・高島進, 1980, *社會福祉の基礎知識*, 有斐閣, 東京.
- 磯村英一・一番ヶ瀬康子・原田友彦, 1984, *差別と人権 1. 部落*, 雄山閣, 東京.
- 小森哲郎, *同和問題の基礎知識*, 明石書店, 2003.
- 大和川付け替え300周年記念事業실행위원회, 2004, *大和川付け替え300周年記念, 300年、人、ゆめ、未來、大和川*.
- 熊谷圭知, 1987, *第三世界都市研究の問題構成とセグリゲーション*, 古賀正則(編) *第三世界をめぐるセグリゲーションの諸問題*, 昭和 60, 61.
- 高智富美, 2005, *外國人多住都市におけるきょう運動とエスニック・アイデンティティ*, *市大社會學*, 6.
- トッカビ後援會, 2002, *トッカビニュース特別号*.
- トッカビ子供會のあゆみ, 2008.2.23.
- 安中同胞親睦會, 1984, *ある被差別部落における在日韓國・朝鮮人實態調査結果課題, 部落解放研究*, 3.
- 八尾市人権文化部人権國際課, 2005, *人権についての*

## 문헌

- 김미숙 등(역), 2003,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서울 (Anthony Giddens, 2001, *Sociology*, 4th edition, Blackwell Publishers Ltd.)
- 김윤식·오인석(역), 2008, *국화와 칼*, 을유문화사, 서울 (Ruth Benedict, 1946, *The Chrysanthemum and Sword: Patterns of Japanese Culture*,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 윤형숙(역), 2002, *상상의 공동체: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에 대한 성찰*, 나남 (Anderson, Benedict, *Imagined communities : reflections on the origin and spread of nationalism*)
- 이원호·안영진(역), 2008, *사회지리학의 이해*, 푸른길, 서울 (Rachel Pain, Dunkan Fuller, Jamie Gough, Robert MacFarlane, Graham Mowl,



市民意識調査報告書.  
八尾市人権文化部人権國際課, 2006. 3, 八尾市人権  
教育・啓發プラン.  
山下清海, 1984, 民族集團のすみわけに關する都市社  
會地理學的研究の展望, 人文地理, 36(4), 312-326.

山本健兒, 1995, 國際勞働力移動の空間—ドイツに定  
住する外國人勞働者, 古今書院, 東京.

(접수: 2009.10.21, 수정: 2009.11.19, 채택: 2009.12.3)